

1956-8-31

# 태평양양주보

제 九三호

서기 一九五六年八月三十一日  
단기 四三九九年丙申七月二十七日

주필	진진택
발행소	동지회관내
대금	부정거나 九三一 년 十元
전화	八九八四九

## 군증강과 부흥에 중점 리대통령 취임후 첫각의서 지시

(서울 十七일발) 대한민국의정부는 十六일 상무대에서 제3대 대통령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부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가 잇섰으며 동회의성상 리승만 대통령은 중대 재건과 국제사업에 치중되. 미국의 대한원조를 앞으로는 군사력의 증강과 경제부흥에 치중하도록 할것과 증소기업의 육성및 주택개량사업의 적극추진을 거듭 지시하였다 한다.

## 안국통일은 十년내에 시이취 합대영전부통령연명

(서울 十일발 奎一외) 퇴임하는 합대영한국전부통령은 十일 한국의 장래전망은 이전보다 더욱 영광하여적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十년내에 8-1제에의 합동은 奎一외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十년의 역사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장래의 길은 라게하는것은 대한민국의 달려있는 물레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분단된 한국은 앞으로 十년이내에 반드시 통일되리라 하고 예언하고 자기가 성공하는데 있어서는 동양에 한쪽의 남부통령은 물론 수위자를 친한다 고 말하였다.

## 유호조약 한중간에 큰 체결 국부의고부장외대부서서연명

(대부 十九일발 奎一외) 연평국부의고부장은 十九일 한중과



국부는 친선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영의외고무장은 리한국대통령의 위임서에 찬성한 후, 서울로  
 부터 귀임한 즉시로 이성과 같이 말하였다.  
 영의외고무장은 대한왕국이 미국과도 그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  
 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수수급 항해협정도 포함될 전기조약은 한미간의 조약이, 성립  
 된 후 조인케 될 것이다. 나는 리한직전네 친해에서 리대통령과  
 한시간에 걸쳐 한중협조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나는  
 리대통령으로부터, 친개척총동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지고 왔다.

### 참진十六개국 동원하라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 진미국 유엔 가입서 회에

한국외무부보통사회사업의 시찰차 = 1일 대한한 미국이 전  
 주 유엔 부대표이었던, 어네스트 웨이, 그로스씨는 = 1일 국회로  
 리빙의장은 방문 환담하였다. 현재 리독포보사회장으로 있는  
 그로스씨는 이날 기자들과 회견하고, 김추의,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관하여,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였는데, 그는, 소련이 전예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미, 한국의 유엔에  
 여러 전문가의 정식이 가입되고 있으므로, 안일, 한국의 유엔가입  
 이 거부된다면, 유엔 기구 자체가 본래의 의의를 상실해 되는 것  
 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실정은, 「월남」, 「투일」 등의 사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후로써, 「한국은,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리된 유엔 헌법적 정부인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로스씨는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엔 가입추진운동의  
 연설하여, 첫째로, 국제적 기구를 총동원하고, 둘째로, 한국차입전  
 국의, 「수개」 차유반들은, 농원하여, 세계적 여론을 환기  
 하여야 한다고, 그의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만일의 경우 에지프트를

의응군으로 원조

소련의 결의를 후속기가 표명

(소련 3국인방, 모스크바) 어제 동사의 견해의 대립으로 폐회한  
스모스크, 은하문제 3국개국 회의에서 미국회 스모스크 은하문제 관리안을  
지지한 서구측 18개국이 동양의 수락을, 에지프트에 게 요구하고  
노스텔, 에지프트 대동맹이 그의 수락을 거절하되 그로 말미암아  
서구측이 에지프트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 에지프트,  
폴 구하기 위하여, 의응군으로 원조하겠다는 소련의 결의가  
어제, 모스크바, 미시 열린, 루마니아, 대사관 주회와 환영성상에서  
후속시점으로 소련방산당 제일 서기에 의하여, 대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 해방군에 중공군이 가입시킨다

한편, 에지프트, 해방군의 1장교는 소련, 중공, 불가리아, 우고  
스라비아, 제국의 청년층으로부터 이미 에지프트, 해방군 가입  
의 신청이 드러난 것을 언명하고 있다.

### 불라사추 긴급회의

스모스크, 은하문제 3국개국 회의에 불라사추는 대표하여 온 피노,  
의상, 노들, 문돈, 로부터, 파리, 로 도나 온 누시로 불라사추 정부  
수뇌부의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문돈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노스텔, 에지프트 대동맹이, 스모스크, 은하의 국제  
관리의 관한 18개국안의 수락을 거절하는 경우, 불라사추가  
취하는 제 2차 대책을 강구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단으로부터, 에지프트, 에 대한 군사행동의  
대해서 받은 질문은, 에지프트, 「시국의 증대성의 비추어, 우리들은  
트라프스트, 와 수도천의, 수도사와 같이 말을 안 해야 한다.」고  
답변한 후, 「만일, 군사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새로운  
전투를 한다.」라고 부연하여, 「안 하 말하기를 회피하였사  
다.



# 조각국 위원회와의 회견

넷셀, 대통령령, 수탁

스파이, 문재, 오를 회담

(음은 24일 밤, 네이 피) 재문은, 예지부트, 대사, 대우, 시는  
 문은 24개국의 참가의 18개국을 대표하여, 넷셀, 대통령령  
 와 회견을 보구한, 예지스, 호주 수상을 방문함, 넷셀,  
 대통령령의 회담은 전달하였다, 넷셀, 대통령령은, 저와의  
 회견을 요청하신, 각국의 스턴, 부의 권한을 받은, 가  
 가 요청하는 회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고, 회견의 장소나  
 일자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넷셀, 대통령령의  
 회담을 받은, 예지스, 호주 수상은, 주시로, 대우, 넷셀, 가에  
 있는 수탁, 저로서, 대우, 개회중인, 영구, 가에 보고하고,  
 주시도, 넷셀, 대통령령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회견의 장소와  
 일자를 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영, 불, 양국 정부는, 여전히, 동지중해에, 군사력을 증가  
 하는데, 힘쓰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영, 불, 양국은, 스페인, 의, 혐의를 하  
 를, 사모는, 위기를, 깨닫기 위해, 군사적 압력보다도, 도리혀  
 경제적 압박에, 치중하리라는, 전제가, 있다.

## 소련인, 스파이, 혐의로, 해직

구련서기국, 근무원

(뉴욕, 구련본부, 24일 밤, 네이 피) 구련서기국에, 변역과  
 으로, 근무하고 있던, 뷔러, 페드로, 씨는, 스파이, 의, 혐의를  
 받고, 해임됨, 구련사무총장의, 조사를 받고, 있던, 의, 의  
 국, 상, 증명한, 정, 보, 들, 누, 진, 한, 사, 실, 이, 관, 명, 의, 에, 오, 늘  
 해, 직, 다, 하였, 다, 하, 면, 구, 련, 대, 표, 부, 는, 페, 드, 로, 씨, 가, 미, 국, 을  
 떠, 나, 것, 을, 알, 로, 하, 였, 다,  
 페, 드, 로, 씨, 는, 스, 파, 이, 의, 죄, 로, 구, 련, 사, 무, 주, 도, 부, 리, 해, 직, 된,  
 프, 인, 제, 의, 소, 련, 제, 사, 무, 원, 이, 다, 페, 드, 로, 씨, 해, 직, 의, 원, 인, 이  
 된, 정, 보, 는, 미, 국, 사, 법, 부, 로, 부, 더, 구, 련, 사, 무, 총, 국, 의, 제, 공, 된  
 것, 이, 다.





# 예언가가 '시명' 이후

## 아, 대통령! 소련에 조서!

행복관심! 일시의 예고를 부

(해우환노우, 펠불바-취 드나일발보이-되-) 쉰 후란시스코의 공화당 전국대회로부터, 노라유라 킨의 당지에서, 휴양중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에 다시 핵무기의 실험을 시한을 시킨다. '앤. 리', 백만톤의 상단하는 파괴력을 가진 핵무탄(수소탄)의 실험을 전주 남우인, 아이테이리아의 서남부 인도, 아후가니스탄, 라, 파키스탄,의 북부 영웅의 서쪽부 지구에서, 구비말리에 행한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군비축소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동재하는 궁지구를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 대통령은 미국의 증임대명양 지구에서 행한 핵무기의 실험을 세계평화의 위협으로서 공적화, 소련의 선전은 반박하고 핵무기의 실험으로 생기는 위협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하여, 글 후에 이 실험을 구비말리에 하지 말라, 그 일차들 미리 발표하도록, 소련의 조서로서, 발표하였다.

## 미국측 '시명'의 배경

(주류 드나일발) 백아관은 드나일, 소련의 핵실험 재개와 실험 장소는 발표하도록 하는 아예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두루먼 전대통령 시대는 1961년 10월까지에 특별, 소련의 핵무기 실험을 공표하고 있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는 그러와서는 백아관이 지적한 발표한 것은 아예의 첫번째이다. 그런데 이번의 백아관의 서명이나 나온 동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있다.

1. 반 소련, 선전 # 각 신문은 이 모두가 강조하고 잇는 것은 소련은 비밀, 무경모도 실험, 미국의 차나 날자와 같은 공표할 뿐 만 아니라, 몇몇의 보도의 실험, 견강까지 시키고 있다. '대조'이다. 즉, 미국은 영웅의 대, '빅키나' 실험에 대해서, '구 소련' 실험 동지 리사회나, 군비축소의 원리에서, 인도와 소련에게



공정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의 반격은 하는 것이다.

1. 두 통영신기작전 II. <시부분>은 글던=회의건처 미국무  
우선 혁명실현을 주장한 것이다. <주장>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이것을 무시하였으나 이 글던은 <회기의 대응>에게 침투  
된 모양이다. 그래서 <글던의 말>은 아이젠하워 씨의 이복  
가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인도에 정우 II. 인도나 아세아의 주입적국은 <비카나 신정>  
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반감을 소련에 전가하기  
위하여 인도 파키스탄, <다후가파스탄>의 분방의 산근처에서  
소련의 방상능력이 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인사소식

## 대한해군군함 2척

### 진주만에 다다미의 양양

#### 동쪽애로 베포러지 화의 회의 대성양

한미간의 상호배회조약에 의거하여 지난 9월 21일 씨아를 떠나  
미국으로부터 한국해군에게 인도된 군함 2척을 인수한 대한  
해군 장병이 베포러지 구간 3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인천단전  
김포식, 내정, 미국의 해군에 예견된 3척을 본다. <중대>의 인술 3척의  
교류 및 시련에 유사할 진주만에 인술한하여 마침내 영적변화  
나오는 양으로 보인다. <회의>는 인술한하여 마침내 영적변화의  
회의를 <회의>의 <회의>이다.

1. <회의>는 <회의>이다. <회의>는 <회의>이다.  
2. <회의>는 <회의>이다. <회의>는 <회의>이다.  
3. <회의>는 <회의>이다. <회의>는 <회의>이다.

1. <회의>는 <회의>이다. <회의>는 <회의>이다.  
2. <회의>는 <회의>이다. <회의>는 <회의>이다.  
3. <회의>는 <회의>이다. <회의>는 <회의>이다.



동해군장병을 위한 환영회는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반부터  
 해군함영준비위원회 주최로 흥한한인회독회사포실에서 시작  
 되었다. 우선 2편의 찬송이 경성적이든 맛있는 한곡  
 을 시의 대접이 있었는, 찬송은 흥취가 오루는 시부터 정성  
 환영회가 준비되었는, 리스승의 시의 사화로 시작되어 해군함의  
 환영한명이 다 소개되었는, 시후에 여흥으로 들어가 해군에서  
 선발된 사회자가 동안하여 다케로운 승서로서 하로 저녁은  
 모두가 유쾌히 지내었다.  
 동군함에서는 8월 29일 아침 9시에 진주만을 출발하여  
 일로 반주로 해리라 한다.

**표의소식**

○ 호랑한인회독회주일예배순서 (9월 2일)

설교자 김치연 목사  
 설교제목 우리는 어떻게 도울까.

○ 외의아와하인회독회주일예배순서 (9월 2일)

설교자 권희상 목사  
 설교제목 "가치 있는 노동"  
 다 28진 18절 - 25절

1. 지난 28일 저녁 7시 30분 외의아와교회에서 금번 한곡부흥을 위하여

합회대공포로서 10월 10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  
 세계복음동지회총회에 참석코자 가시는 도중 기한하시  
 이대영목사 이복사 김찬근 목사 조동진 목사는 마저 환영  
 회찬찬조가 있었는 하더라. 환영회 이대영목사는 다음교회  
 원의소식을 이같이 하라 한다.

1. 외의아와교회에서 10월 10일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9월 28일 주일예배 순서**

9월 28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개회기도나 제의찬송은 박정환 목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권순모  
 지배회 목사 김태환 목사 회신용인사기 회신사



해군저번대비특구연

와히아와지방부인구래회 三十五元  
 리에바 二元 헨홍간 一元 五十二元  
 와기파후 〓 오춘화 五元  
 호항 〓 함건복 二元 김기증 二元 리태교 三元  
 리춘성 一元 한장춘 一元

주말재전보단

〇년례금  
 와일루주 〓 고김주경 四十元  
 호항 〓 서성백 十元 와히아와 〓 송석순 十元

〇주보대금  
 린리화 〓 김출애 五元  
 와히아와 〓 김용술 十元 송석순 十元

〇적립금  
 와일루주 〓 김주경 二元

一九五六年에 사랑하신 호상부원

二八三	조병선	二八四	김순득	二八五	김성옥
二八六	리상태	二八七	정현철	二八八	안재선
二八九	리덕여	二九〇	양세훈	二九一	김주현
二九二	박응해	二九三	김주경	二九四	강석필

